

광주시, 올해 94개 청년사업에 4499억 투입

광주시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창업자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94개 사업에 4499억원을 투입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목표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94개 사업(4499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7억5600만원을 편성해 케이-아트(K-ART)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청년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교육사업과 발맞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879억원), 글로벌 대학 지원(348억), 창업중심대학 사업(65억원)을 중점 추진해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청년정책에 1375억원을 투입,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의결 일자리·주거에 집중투자... 교육·문화·참여 기반도 다져 케이-아트 청년창업자 등 첫선... 청년월세는 상시 전환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개 사업에 84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글로벌 대학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빛고를 직업교육혁신지구 등을 통해 미래산업과 지역산업 현장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는 26개 사업에 78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의 초기자산형성과 부채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13통장',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청년드림은행(재무상담소)' 등을 추진한다.

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 G-패스)'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망을 마련한다.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케이-아트(K-ART) 청년창업자 지원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시행한다. 참여·기반 분야는 6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통합플랫폼' 등을 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한다. 이날 회의의 주재한 이현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청년정책위원들이 청년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지혜를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청년정책이 더 발전하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전남도, 23일까지 수출정보망 누리집서 온라인접수

전라남도가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6 자카르타 수출상담회 및 농수산물 판촉전'에 참가할 농수산물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전남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카르타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유통·소비 거점으로, 할랄 식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전략적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농수산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을 갖춘 기업이다. 전남도는 12개 기업 내외를 선정해 수출상담회와 현지 판촉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3일까지며,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취득 비용(기업당 2개 품목)을 비롯해 수출상담회장 및 판촉 부스 임차·설치비, 통역 지원, 현지 이동 차량, 항공료 일부 등이 지원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에 매장을 운영 중인 현지 마트에 약 1개월간 제품을 입점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기회도 제공된다.

자카르타 쇼핑몰에서 전시·시식 중심의 농수산물 판촉전을 열고,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도 진행해,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자카르타는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중동 할랄 시장으로 확장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남 농수산물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수출 다변화의 실질적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나주시, 농생명산업 육성... 브랜드·가공·수출 강화 농촌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1022억 투입

전남 나주시는 농생명 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농업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잘 팔리는 농산물', '지속 가능한 농업',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브랜드 육성, 가공·유통 혁신, 수출 확대,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농정 전환에 속도를 낸다. '친년이음나주배', '나주들에찬한우' 등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납품 딸기와 세지 멜론 등 권역별 특화 품목을 품목화해 전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동수동에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과 창업, 기업 연계를 통해 1차 생산 중심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과 수출 확대도 병행한다. 농특산물 온라인물 '나주물'은 지난해 매출 16억원을 기록했으며, 민선 8기 들어 미국·호주·베트남 등 8개국과 4470만달러 규모의 농식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청년농·후계농 육성, 스마트 농업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전남농기원, 2670명 대상 109개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전남농업기술원은 다음달부터 총 109개 과정 267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26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농업의 신산업화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1~3일 간 진행되는 단기교육 85개 과정과 1~2년간 운영하는 장기교육 24개 과정으로 채워졌다. 단기교육과정은 총 85과정으로 품목별 생산기술 중심의 스마트농업기술교육, 가공·6차산업을 위주로 하는 융복합농업교육, 귀농·청년농·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교육, 최신 마케팅기술 학습을 위한 스마트팜·정보화교육, 무인 자율농업기계 중심의 첨단농기계교육 등이다. 스마트농업기술교육 과정은 기초과정

과 심화과정으로 구분, 지난해보다 10개 과정을 확대했다.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기교육과정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전남생명농업대학·농업경영자과정 등에서 총 24개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순천대·목포대·전남도립대 등과 협력해 농작물 생산기술, 가공·유통·마케팅 등 세부 분야별 심화교육을 1~2년간 진행한다. 1~2월 중 신입생을 모집해 2~3월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기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강한파 예고... 시설작물, 보온커튼 등 적정온도 유지해야 농진청 "작물 피해 철저히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이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고되면서 농작물 동해(언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19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최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작물이 생육을 재개하거나 수분 함량이 늘어난 상태라서 한파가 지속되면 동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서릿발 발생과 뿌리썩음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진청은 시설작물의 경우,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난방기 과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지의 월동작물은 배수로 정비와 답압(흙 눌러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준다. 과수는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언 피해가 없도록

목 흰색 수성페인트칠, 범직, 부직포, 보온패드 등으로 감싸줘야 한다. 축사는 내부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급수시설과 배관이 얼지 않도록 확인하고, 난방기나 전열기를 쓸 때 먼지를 제거 후 누전·합선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 특히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방한모자와 장갑,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농진청은 향후 한파 발생 지역에서는 현장 전문 상담을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급격한 기온 저하로 시설작물 언 피해가 우려된다. 생육 한계온도 유지, 보온 자재 활용, 환기·습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기상청 예보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참조해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 사과